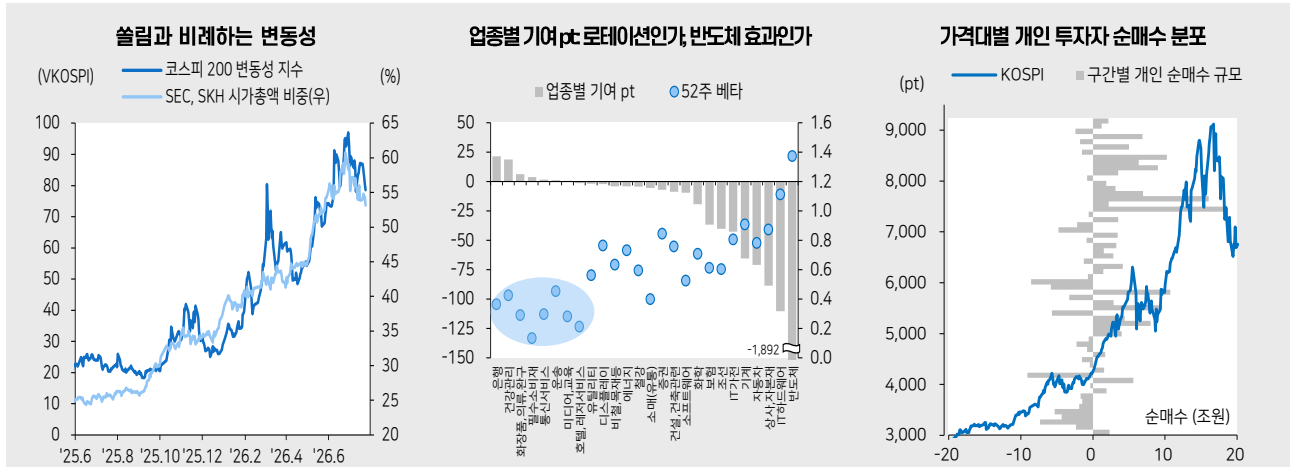


## 오늘의 차트

염승준 연구원

## 코스피 동향: 쏠림과 조정



- 주: 1. 구간별 개인 순매수 규모는 각 일별 종가 기준으로 100pt 구간별로 개인 순매수대금을 집계  
 2. 업종별 기여 pt는 2026.6.22~7.27 기간동안 KOSPI 각 구성 종목의 지수 기여 pt를 계산 후 종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합산하여 도출  
 3. 모든 데이터는 7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KOSPI200 옵션 가격에서 추출한 향후 30일 기대변동성을 연율화 표준편차로 표시한 지수로, 미국 VIX의 산출 체계를 준용한다. 통상 주가지수와 변동성지수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국내 시장은 6월 2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까지 강세장과 고변동성이 병존하는 이례적 국면이 이어졌다. 배경에는 지수 집중도 심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KOSPI200 내 합산 시가총액 비중이 60.7%까지 확대되며 종목 분산효과가 약화됐고, 지수 변동성이 두 종목에 상당 부분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따라서 현 국면의 VKOSPI를 전통적 '공포지수'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KOSPI 고점(6월 22일) 이후 지수는 2,358.8pt 하락했으며, 이 중 반도체 업종이 1,892.0pt로 전체 낙폭의 80.2%를 설명한다. 기여 상위 업종에는 은행, 건강관리, 화장품/의류 등 저변동성 업종이 위치한다. 반도체가 낙폭의 8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저변동성 팩터로의 본격적인 자금 이동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로테이션인지, 반도체 효과인지 저변동성 업종의 상대성과가 유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Volume Profile(매물대 분석)은 특정 기간 동안 각 가격대에서 누적된 거래대금을 보여주는 지표로,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이뤄졌는지를 시각화하는 지표이다.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대금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가격대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저항과 지지가 발생하는 중요한 심리적 가격대임을 시사한다. 반면 가격대별 특정 투자주체의 순매수 분포는 어떤 가격대에서 특정 주체의 유입이 늘어났는지를 시각화한다. 매물대가 레벨 예측에 사용된다면, 순매수 분포는 방향성 판단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7,000pt 이상 레벨에서 유입이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반면 외국인은 7,000pt 이상 레벨에서 순매도 규모를 크게 늘렸다).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